국별 리포트

가나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1. 2

Ⅰ. 일반개황 2

Ⅱ. 경제동향 3

Ⅲ. 정치·사회동향 9

Ⅳ. 국제신인도 11

Ⅴ. 종합의견 13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Ⅰ. 일반개황

면 적	239천 km^2	G D P	262 억 달러(2009년)
인 구	23.8 백만명(2009년)	1 인 당 G D P	1,098 달러(2009년)
정 치 체 제	공화제(대통령중심제)	통 화 단 위	Cedi (GHC)
대 외 정 책	친서방중립	환 율(달 러 당)	1.41(2009년)

□ 아프리카 서부의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가나는 한반도의 약 1.1배에 달하는 국토와 2,38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부르키나파소(북), 토고(동), 코트디부아르(서)와 접경하고 있음.

□ 세계 2위의 코코아 생산국이자 아프리카 2위의 금 생산국으로 광물, 임산, 수산자원도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편임.

□ 1957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1981년에 롤링스(Rawlings) 정권이 출범하기까지 다수의 쿠데타(5회)와 정권교체(9회)를 겪는 등 정치적 혼란이 이어졌음. 2000년 12월 대선에서 신애국당(New Patriotic Party)의 쿠푸어(Kufuor)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민주선거를 통한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음. 2008년 12월 대선에서는 국민민주회의(National Democratic Congress)의 밀스(Mills)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8년간의 신애국당 지배체제가 종식되었음.

Ⅱ.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e
경 제 성 장 률	7.1	6.5	8.4	4.7	6.6
재정수지/GDP	-4.7	-5.6	-8.5	-5.8	-6.1
소비자물가상승률	11.7	12.7	18.1	16.0	8.6

자료: IMF, EIU

□ 2010년 경기 회복세

○ 2006~08년에는 금 등 귀금속을 중심으로 한 광업부문, 통신·관광업 등 서비스 산업의 성장에 힘입어 소비와 투자가 증가하며 연평균 7.3%의 비교적 양호한 경제성장을 시현하였음.

○ 그러나 2009년에는 세계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 증가세 둔화, 건설부문 침체 등의 영향을 받아 경제성장률은 4.7%로 둔화되었음.

○ 2010년에는 농업 및 서비스 산업의 호조로 소비와 투자가 회복되며 경제성장률이 6.6%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1년에는 주빌리(Jubilee) 유전의 석유 생산 및 수출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8.9%에 이를 전망임.

□ 재정수지 적자기조

○ 재정수지는 정부의 비효율적인 조세 운영, 보조금 지급, 과중한 외채 부담 등으로 인해 적자기조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2008년에는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축구대회 개최(1월) 및 대통령 선거(12월) 등과 관련하여 재정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적자 규모가 GDP의 8.5%까지 확대되었음.

○ 2009년에는 정부의 세수기반 확충 노력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5.8%로 하락하였으나, 2010년에는 수입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차입금 이자 등 지출증가로 6.1%로 상승한 것으로 추정됨.

□ 소비자물가 상승세 둔화

○ 2008년에는 수입관세 철폐, 비료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정부의 적극적 물가 안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 고유가에 따른 수입가격 상승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8.1%로 급등하였음.

○ 2009년에는 상반기 중 세디(Cedi)화의 평가절하에도 불구하고, 긴축재정정책, 식료품 가격의 안정세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6%로 다소 하락하였음.

○ 2010년에는 정부의 긴축정책 강화, 세디화의 안정세, 양호한 농작물 작황에 따른 식료품 가격의 안정세 등에 힘입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8.6%로 대폭 하락한 것으로 추정됨.

2. 경제구조 · 정책

□ 제조업 기반 취약

○ 산업별 GDP 구성비율이 농업 32%, 서비스업 49%인 반면, 제조업은 19% 수준에 불과하여 가전제품, 자동차 등 생필품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전형적 개도국형 시장구조임.

○ 광물자원이 총수출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금 수출이 90%를 차지하는 등 1차 산품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아, 국제 금 시세 등에 따라 국가경제가 크게 좌우되는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음.

□ 열악한 인프라 환경

○ 가나는 1957년 독립 당시만 해도 전 세계 개발도상국 중 도로 인프라가 가장 잘 구축된 나라였으나, 1970년대부터 도로, 철도, 통신 시스템을 비롯한 대부분의 경제 인프라가 낙후되면서 도로 교통에 심각한 정체가 발생하는 등 비효율적인 경제 활동이 지속되어 왔음.

○ 2008년 1월에 개최된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축구대회를 앞두고 도로 등 각종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가 추진되었으나, 별다른 개선효과를 거두지는 못하였음.

○ 2010년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이 발표한 '인간개발지수'에 따르면 가나는 전체 169개국 중 130위에 그쳤으며, 보건, 교육 등 사회 환경 전반이 열악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 **풍부한 광물자원 보유**

○ 가나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이어 아프리카 제 2의 금 생산국임. 금 생산은 용암이 흘러내리면서 형성된 6대 Belt 지역(Asanti, Sefwi, Kibi-Wineba, Bui, Bole, Wa-Lawra)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다이아몬드, 보크사이트, 망간 등도 풍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채굴작업이 최근 활발히 추진 중에 있음.

□ **2010년 말 석유 생산 개시**

○ 2007년 6월, 영국의 석유회사인 Tullow Oil이 가나의 주빌리 해역에서 해상 유전을 발견하면서 관심이 고조되었음.

○ 주빌리 해상유전(확인매장량 20억 배럴)은 2010년 12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생산을 개시하였으며, 2011년 산유량은 약 12만 배럴/일로 예상됨(2008년 산유량 사우디아라비아 1,084만 배럴/일, 나이지리아 217만 배럴/일).

□ **아프리카 국가 중 양호한 기업환경**

○ 세계은행이 발표한 'Doing Business 2011'에 따르면 가나는 총 183개국 중 67위로 비교적 양호한 순위를 기록하였으며, 지난 2006~07년에는 세계 Top 10 Best Reformer로 선정되기도 하였음.

□ **IMF의 지원 아래 착실한 구조조정 시행**

○ 2003년 4월, IMF와 3개년 PRGF(Poverty Reduction and Growth

Facility) 원조협정을 체결하고 거시경제의 안정성 유지, 은행 등 공공분야의 구조개혁을 강력히 추진하여 IMF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았음.

○ 2009년 7월에는 3개년 PRGF 원조협정을 새로이 체결(6억 달러 규모)하고 재정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 2010~13년, 중기개발계획(MTDP) 시행

○ 정부는 2002년 이후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 및 주요 원조국과 협의를 거쳐 가나 빈곤감축전략(Ghana Poverty Reduction Strategy: GPRS)을 추진하여 왔음.

○ GPRS I(2003~05년), GPRS II(2006~09년)에 이어 정부는 2010~13년의 중기개발계획(Medium Term Development Plan: MTDP)을 시행 중임.

- GPRS I는 거시경제의 안정과 빈곤감축, GPRS II는 부의 창출 및 빈곤감축 지원을 위한 경제성장 촉진에 중점을 두었음.

- MTDP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경제 안정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빈곤감축을 통해 가나가 UN의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 및 중소득국가(Middle Income Status)의 지위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MTDP의 주요 7개 목표는 다음과 같음.

(1) 거시경제의 안정
(2) 인프라 개발의 확대
(3) 농업의 현대화 및 산업발전의 가속화
(4)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 강화
(5) 인적자원의 개발 확대
(6) 지배구조의 투명성 강화
(7) 빈곤의 감축 및 소득불균형의 해소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e
경상수지	-1,043	-2,151	-3,543	-1,199	-2,287
경상수지/GDP	-5.1	-8.7	-12.4	-4.6	-7.3
상품수지	-3,027	-3,894	-4,999	-2,207	-3,094
수출	3,727	4,172	5,270	5,840	7,693
수입	6,754	8,066	10,269	8,046	10,787
외환보유액	2,268	2,808	2,028	3,165	3,950
총외채잔액	3,188	4,463	4,970	5,427	6,602
총외채잔액/GDP	15.6	18.0	17.4	20.7	21.1
D.S.R.	5.0	3.0	3.3	3.4	n/a

자료: IMF, EIU

□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 기조

○ 금, 코코아 등의 수출이 호조를 보였으나 국제 유가 상승 및 자본재 수입 급증 등으로 2008년에 상품수지 적자는 50억 달러에 육박하였음. 이에 따라 해외이주자 송금 등으로 이전수지가 흑자를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적자가 35억 달러(GDP 대비 12.4%)로 증가하였음.

○ 2009년에는 국제 유가 및 식료품 가격 안정에 힘입어 상품수지 적자가 22억 달러로 전년보다 대폭 감소하였음. 상품수지 적자 축소 및 이전수지 흑자로 인해 경상수지 적자도 전년대비 23억 달러 감소한 12억 달러(GDP 대비로는 4.6%)를 기록하였음.

○ 2010년에는 수입 증가로 상품수지 적자가 늘어나 경상수지 적자는 GDP 대비 7.3%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나, 2011년에는 석유 수출 및 주력 수출품인 금, 코코아 등의 수출 호조로 적자가 GDP의 5.2%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 **환율 대체적으로 안정 전망**

○ 달러당 세디화 환율은 2008. 5월 말에 1.0 내외이었으나 재정 적자 및 경상수지 적자 확대 등의 영향으로 2009년 7월 말에는 1.5 수준까지 상승하였고 이후 2010년 말까지 대체로 1.4~1.5 수준을 유지하였음

○ 2011년에는 환율이 대체로 안정될 전망임.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불안이 증대된다면 재정·경상수지 적자와 함께 환율상승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석유생산으로 인한 외환수입 증가와 석유화학분야 개발 투자로 인한 외환의 추가 유입이 환율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외환보유액 증가**

○ 외환보유액은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로 인해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20억 달러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2009년 말에 경상수지 적자 축소와 외국인직접투자(16.8억 달러) 유입 등으로 31.7억 달러(총수입의 3.5개월분)로 늘어났고 2010년 말에는 39.5억 달러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외채상환능력 개선**

○ 총 외채규모가 2004년까지만 해도 GDP 대비 80%에 육박하였으나, 2004년 HIPC(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의 Completion Point (채무탕감 자격 부여 단계)를 달성하고 2006년 MDRI(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 프로그램에 의해 대규모 채무탕감을 받은 바 있음.

- 2005년 6월에 G8 국가들은 HIPC Initiative 하에서 Completion Point에 도달하였거나 도달할 예정인 국가에 대하여 3개 국제기관(IMF, IDA, AfDF)이 채권의 100%를 탕감할 것을 제시하였음. Completion Point 달성 조건은 IMF와 세계은행 차관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 하에서 양호한 실적을 달성하는 것 등임. HIPC Initiative에는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가 HIPC의 외채부담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공동 조치가 포함됨.
- MDRI는 HIPC가 UN의 MDG를 달성할 수 있도록 채무를 탕감하여 주는 프로그램임. HIPC Initiative와는 달리, MDRI는 공식 양자·민간 채권자 또는 IMF, IDA, AfDF 이외에 여타 국제기구의 상응하는 채무탕감을 제시하지 않음.

○ 2006년 이후 외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2009년 말에 GDP 대비 총외채 잔액이 20.7%를 기록하는 등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외채 상환부담은 비교적 큰 편임.

○ D.S.R.이 2006년 이후 5% 이하로 유지되는 등 외채상환능력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Ⅲ. 정치·사회 동향

1. 정치 및 사회 안정

□ 평화로운 정권교체를 통한 정치 불안 완화

○ 195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1981년 롤링스(Rawlings) 정권 출범까지 수많은 쿠데타(5회)와 정권교체(9회)를 겪는 등 정치적 혼란을 거듭해왔음.

○ 그러나 2000년 12월 대선에서 신애국당(New Patriotic Party: NPP)의 쿠푸어(Kufuor) 대통령이 국민민주회의(National Democratic Congress: NDC)의 밀스(Mills) 후보를 제치고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아프리카에서는 드물게 민주선거를 통한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루었음. 쿠푸어 대통령은 2004년에도 재선되어 8년간 안정적 통치체제를 유지하였으나, 헌법의 대통령 3선 금지 조항에 따라 2008년 12월 퇴임하였음.

□ 부정부패 척결 수사 등 여야간 정치적 갈등 우려

○ 2008년 12월 대선에서 NDC의 밀스 후보가 NPP의 아도(Addo)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물리치고 당선되었으며, 총선에서도 여당인 NDC가 총 230석 중 115석을 차지하면서 8년간의 NPP 체제가 종식되었음.

○ 향후 가나의 정치적 향방은 여당인 NDC가 NPP에 어느 정도의 권력을 인정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임. 현재 NDC는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명분하에 NPP 소속 의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어, 정치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임.

□ **부족 간의 마찰 등 사회 불안 요인 잠재**

○ 2008년 12월 대선 기간에 NDC와 NPP의 지지자들이 각자 승리를 주장하며 일부 도시에서 가두시위를 벌이기도 하였으나, 선거 결과가 확정된 후에는 정치집단 간의 마찰은 다소 누그러진 양상을 보이고 있음.

○ 부족간 마찰은 내란이나 전쟁을 일으킬 만한 수준은 아니나 일부 지역에서 이따금 발생하고 있는 등 어느 정도의 사회불안 요인은 잠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2012년 대선 후보 선출 레이스 시작**

○ 2010년 9월에 야당인 NPP는 2008년 대선에서 패배하였던 아도(Addo)를 2012년 12월로 예정된 대선 후보로 다시 선출하였음. 반면, 여당인 NDC 내에서는 현 대통령에 반대하는 분파가 형성되었으며, 전 대통령 롤링스의 처(妻) 당내 경선 출마설, 현 대통령에 대한 당원들의 신뢰 약화설 등이 끊이지 않고 있어 대선 후보 선출이 순탄치 않을 전망임.

2. 국제관계

□ **서방국가 및 중국과의 관계 강화**

○ 롤링스 대통령 집권기인 80년대 중반부터 자본주의 시장경제정책으로 전환하여 경제발전에 필요한 원조·투자 유치를 위해 미국, 영국 등 주요 서방국과 적극 협력해 왔음. 미국과는 쿠푸어 대통령 집권기인 2006년에 5억 달러 규모의 원조자금을 공여 받는 등 관계를 강화해왔음.

○ 최근에는 인프라 건설 사업을 위해 중국에서 대규모 양허성차관을 도입하면서, 대외관계의 중심이 미국, 영국 등 서방국가에서 중국으로 옮겨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지역 내 외교적 영향력 유지**

○ 쿠푸어 대통령이 2003~04년 서부 아프리카 경제공동체(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ECOWAS)의 의장을 역임하는 등 가나는 나이지리아와 더불어 서부 아프리카의 경제, 외교 분야에서 중

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주변국인 토고, 베넹, 코트디부아르 등과의 정치·경제 교류 강화에도 역점을 두고 있으며, 지난 2007년 쿠푸어 전 대통령이 아프리카연합(AU)의 의장으로 선출되면서 AU에서도 입지를 강화해 왔음.

- 한편, 코트디부아르와의 해양 경계선 부근에 매장되어 있는 상당한 양의 원유와 관련하여 양국 간에 원만한 해결이 예상되나 분쟁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Ⅳ. 국제신인도

1. 주요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

□ 주요 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

기 관	종 전 등 급	현 행 등 급
OECD	6등급(2009. 10)	6등급(2010. 10)
S&P	B+(2009. 3)	B(2010. 8)
Fitch	B+(2009. 3)	B+(2010. 9)

○ S&P는 석유수입(收入)관리법안 통과의 지연 및 재정수지의 악화 가능성 등을 이유로 2010년 8월에 가나의 외화표시 장기채권에 대한 등급을 B+에서 B로 하향조정하였음.

□ 주요 ECA 인수태도

○ 미국 EXIM : 공공부문에 대한 전액인수, 민간부문에 대한 제한적 인수 가능
○ 영국 ECGD : 중단기 인수가능
○ 독일 Hermes : 단기 인수가능하나 제약 조건이 있을 수 있음

2. 외채상환태도

□ 외채상환태도 개선

○ 2004년 7월 HIPC Completion Point 달성 및 2006년 MDRI 프로그램에 의해 대규모 채무탕감을 받은 이래 장기 외채에 대한 연체 원리금이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음.

- 장기 외채에 대한 연체원금(백만 달러) : 42('06)→31('07)→29('08)
- 장기 외채에 대한 연체이자(백만 달러) : 19('06)→11('07)→9('08)

○ 대규모 채무 탕감이 견실한 경제성장 및 수출과 맞물려 외채상환능력은 양호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3. 우리나라와의 관계

<표 3> **한·가나 교역규모** 단위: 백만 달러

	2007	2008	2009	2010	주요 품목
수 출	146	195	154	213	자동차, 합성수지
수 입	18	16	17	21	코코아

* 자료: 한국무역통계

□ 국교 수립 : 1977년 11월 14일 (북한과는 1964. 12. 28)

□ 주요 협정 : 문화협정('87), 경제기술무역협정('90),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03)

□ 2010년 교역규모는 2.3억 달러로 전년 대비 36.8% 증가

○ 2010년 우리나라의 대 가나 수출은 2.1억 달러로 전년 대비 38% 증가하였고, 수입은 2,100만 달러로 28.9% 증가하였음.

○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합성수지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코코아 등임.

□ 해외직접투자(2010년 9월 말 누계, 총 투자 기준): 24건, 52,419천 달러

Ⅴ. 종합 의견

□ 가나는 농업부문의 호조, 풍부한 광물자원, 통신·관광업 등 서비스산업의 견실한 성장 등에 힘입어 2006~08년에 연평균 7.1%의 양호한 경제성장을 시현하였으나, 2009년에는 세계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아 경제성장률이 4.7%로 둔화되었음. 2010년에는 농업 및 서비스산업의 호조로 민간 소비와 투자가 회복되어 경제성장률이 6.6%로 추정되며, 2011년에는 주빌리 유전의 원유 생산·수출 등으로 8.9%에 이를 전망임.

□ 재정수지는 2009년 이후 세수기반 확충 노력과 주요 수출품의 가격상승에 따른 재정수입 증대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적자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 상품수지 적자 기조로 인해 경상수지 적자도 지속되고 있으나, 대규모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등으로 외환보유액이 증가하고 있음.

□ 취약한 제조업 기반과 낙후된 사회 인프라 등이 경제의 취약점으로 지적되나, 금 등 풍부한 광물자원과 상대적으로 양호한 기업환경이 경제성장의 동력이 되고 있으며, 특히 2010년 말부터 시작된 원유 생산이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정치적으로는 현 밀스 대통령의 평화적 정권 교체 이후 국정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용되어 왔으나, 2012년 대선이 다가옴에 따라 여당인 국민민주회의의 내분 및 야당인 신애국당과의 정치적 갈등 등이 불안요소로 남아 있음.

책임조사역 김찬수(☎02-3779-5727)
E-mail : avik@koreaexim.go.kr